



문화관광부 불자회 '문불연' 과 종무실 직원 등 20여명은 6월 12~13일 송광사·선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송광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효스님(맨 오른쪽)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문광부 불자모임’ 송광사·선암사에서 템플스테이

“고찰에 오니 불심충전 저절로”

“막연히 알았던 불교가 전혀 다른 차원의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아요.”

6월 12~13일, 순천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선암사와 송광사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한 문화관광부 불자 모임 문불연(文佛緣·회장 최병규)과 종교업무주관하는 종무실(실장 이보경) 직원 20여명이 밝힌 한결같은 소감이다. 이들에게 남도 땅 천년고찰에서의 1박 2일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할 인간의 가치와 소중한 도반애를 일깨워준 기회였다. 또한 창립 2년째를 맞는 문불연의 활성화를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선암사 前 총무 승범 스님으로부터 사찰안내를 받고 있는 문불연 회원들.

자상한 안내에 “제대로 배우고 싶다” 환희심  
창립 2년 맞은 ‘문불연’ 활성화 다짐

# 비가 온다면 예보와는 달리 화창한 하늘이 열린 12일, 참가자들은 먼저 태고종 선암사를 찾았다. 편안함이 좋아, 자연 속의 절이 좋아 문불연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불자라 말하기도 민망하다”는 참가자들의 표정에 걱정이 비친다. 그러나 선암사는 소박한 자연미를 머금고 긴장을 풀어준다. 사찰안내를 맡은 선암사 前 총무 승범 스님의 입담은 사찰구조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사찰건축을 주제로 불교를 어떻게 느끼고 배워야 할 것인가를 일러준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지정장으로 이동한 승범 스님은 생과 사, 과거와 미래를 지정전과 함께 설명했다. “지정전은 지정보살을 모신 집이거든요.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일깨워주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맨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던 문불연의 막내 채선희(종무실)씨가 “스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며 환희심을 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태고종 총무원이 제안하고 문불연과 종무실이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 지난해 3월 창립 이후 이렇다할 활동을 보이지 못했던 문불연은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행사가 참가한 문불연 회원들의 각오는 남달랐다. “지난해 불교모임을 창립하기는 했지만 부끄럽게도 법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태고종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립니다.

이번 템플스테이가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최병규 문불연 회장(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기획조정팀장)은 반성과 각오로 이번 템플스테이에 임했다. 종무실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 불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참가를 주저하지 않았고, 개신교·가톨릭·민족종교 담당자들은 시종 진지함을 잃지 않았다. 개신교와 가톨릭 담당 양재환 서기관은 “사찰에 갖는 심오한 의미를 듣고 나니 불교가 새롭게 보인다”며 흐뭇했다.

#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송광사도 방문했다. 송광사를 둘러보고 우리 고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다. 태고종 종정 해초스님은 결계제에는 일반인을 접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법문을 들려주었고, 태고종 총무원과 선암사, 송광사는 속시는 물론 사찰안내 등으로 활동을 격려했다. 종단과 사찰의 배려가 큰 만큼 참가자들이 1박 2일동안 느낀 감회 또한 컸다. 천은선 총무원(관광자원과)은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발심이 도반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며 “이제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는 숙제가 남았다”고 털어놓았다. 종무실에서 불교와 전통사찰을 담당하는 송원석씨가 해답을 내놓는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회향 아닐까요?”

순천·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열린우리당 ‘이타회’

6월 24일 조계사에서 창립법회

열린우리당 불자국회의원들이 신행모임을 창립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열린우리당 이타회(회장 윤원호)는 6월 24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주요 종단 대표를 비롯해 문화상 열린우리당 의장 등 정관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타회에는 윤원호 회장을 비롯해 최재성 의원(간사), 이용희 의원, 강창희 의원, 이영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에 가입한 14명과 친불교적인 성향을 보여준 의원들이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최재성, 이영호 의원 등은 2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불자회원모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법장 스님은 지난해 윤원호 의원 등으로부터 의원불자 창립 소식을 듣고 이타회라는 취호를 내렸다. 박봉영 기자

파주시청 공무원불자회 생김다

6월 25일...지역사찰 적극 지원

경기도 파주시청에도 공무원불자회가 생긴다. 지역 사찰과 신도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다.

파주시청 공무원불자회는 6월 25일 오전 11시 파주시청 소공연장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지역사회 스님들과 재가불자,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법회에서는 초대회장 및 집행부를 선출한다.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창립을 축하하는 법문을 내릴 예정이다.

파주시청불자회는 앞으로 월 1회 정기법회를 비롯해 성지순례, 수련회 등을 열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질 예정이다.

우리단체 이사람

황의숙

서울경인교사불자회 부회장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임창홍)의 전법사 황의숙 부회장(51·사진, 서울 금호초등학교 교사)인 황부회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제일’ 불자다. 전법비결은 돈독한 신심과 구성진 말씀씨. 밤새 들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황부회장의 달변을 듣고 있으면 절로 빠져들 것만 같다.

“전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교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전하느냐고 되 물어요. 전법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권유하면 그것이 전법입니다.”

서울 잡설 불광사 신도인 황부회장의 책상과 가방에는 불서와 전법용 안내지, <월간 불광> 구독 신청서가 있다. 심지어 답임을 맡고 있는 2학년 5반 교실에서도 어린이친불가, 불교문화, 불교관련 비디오테이프 등을 접할 수 있다. 어린이친불가를 개사한 반가를 만들어 놓았고, 집판에는 오관계가 붙어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불교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만 하는 거지요. 책

상에 불교만화를 두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일기에서 절에 간 내용이 있으면 칭찬을 하면서 어린이 법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인근 교회에서 학교 앞에서 학교하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선물을 주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그때마다 불자들이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한다.

“집에 있을 때 교회에서 찾으면 정중히 맞아 이야기를 들읍시다. 그리고는 전법용 안내지를 내밀고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면 불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됩니다.”

고교불교학생회와 대불련 활동을 하기도 했던 황 부회장은 1991년부터 불광사와 인연을 맺었고, 1997년 서울경인교사불자회가 결성되자 곧바로 가입해 교사들의 신행혁신을 위해 힘써왔다.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황부회장은 언제나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가슴에 담고 교단에 선다. 박봉영 기자

“청정국토 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8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 대구 동화사에서 펼쳐

6월 12일, 대구 동화사에는 노란 조끼와 모자를 노란 물결을 이룬 전국 불교산악인들의 함성이 저렁저렁 울려 퍼졌다. 제8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이하 산악인대회)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중앙신도회 손안식 부회장,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 및 대구광역시신도회 집행관 회장 등의 인사를 비롯해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산하 39개 산악회원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불교산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기념법회(사진)에 이어 2부 어울림마당이 분수대 앞에서 펼쳐졌다.

이날 지성 스님은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마음으로 전국의 명산과 사찰을 찾아 신행을 증명하고 전국적인 신행단체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장근 대구불교산악회장은 환영사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여 진정한 불국토를 만드소서 하는 염원을 달성하고 우리가 사



는 국토를 청정히 지키고자 생태계보호 등 생명존중의 실천을 일깨우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요 수행”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 김진관 총재는 “한 산악회 한 산 지키기 운동, 사찰 수행 환경 및 문화재 보호 모니터링 등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불교산악인이 되자”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인의 개금불사 전사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타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전사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0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133-33 태창빌딩 1층



2005학년도 후기 박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요강

- 1. 모집학과 및 전공
가. 학위과정
계열 학과 석사 박사 전공
인문계열 불교학과 0명 10명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
2. 지원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해당없음
나. 박사학위과정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5년 8월 취득예정자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또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등록원 타 종단 승려
2)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동일계 출신이 아닌 자도 응시할 수 있음
4) 비동일 학과 및 특수(야간) 대학원 출신자는 입학 후 소정의 석사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방법(특별전형)
1) 서류심사 및 면접
-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적성, 학업계획서에 따른 수확준비도 평가
4. 제출서류
박사학위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1부
2) 석사학위수여 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또는 수여예정증명서 1부
3) 석사학위과정 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4) 평가기초자료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5) 제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수계증명서 1부
8) 총무원장추천서 (타 종단승려에 한함) 1부
5. 원서교부
가. 일시 : 2005년 6월 27일(월) ~ 6월 30일(목) 09:00 ~ 17:00까지
나. 장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6. 원서접수
가. 우편접수 : 2005년 6월 28일(화) ~ 7월 1일(금) 16: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자는 전형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체국 통상환을 발급 받아 원서,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 (확인전화 필)
나. 방문접수 : 2005년 6월 28일(화) ~ 6월 30일(목) 16:00까지
다.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031-980-7862)
7.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5년 7월 5일(화) 10:00부터
나.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본부 동 4동 세미나실
8. 합격자발표
가. 일시 : 2005년 7월 6일(수)
나. 장소
- 대학원에 게시판 및 본교 홈페이지(www.sangha.ac.kr)에 공고함(개별통보하지 않음)
- 합격과 관련된 서류(합격통지서, 등록금고지서, 학사안내, 학생증 신청서)는 합격자 발표 후 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개별 송부함
9. 합격자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05년 7월 19일(화) ~ 7월 22일(금)
나. 등록장소 : 외관은행 328-22-01312-0 중앙승가대학교
10. 유의사항
- 지원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학위(석사학위)취득예정자는 입학전까지 학위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 입학이 취소됨

학교법인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